



즉시 배포용: 2023년 6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전국을 선도하는 유급 육아휴직 프로그램을 확대해 뉴욕주 공무원 150,000명 이상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

CSEA와의 합의에 따라 직원 52,000명 이상에게 12주간 완전 유급 육아휴가 제공

비준될 경우, PEF 및 UUP 합의에 따라 88,000명 이상에게 12주간 완전 유급 육아휴직 제공

올해 초 비보장 주 공무원 1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

뉴욕주 노동부는 주 전역에서 육아휴가 인식 제고 캠페인 시작

육아휴가 공익 캠페인 동영상 확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그의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 공약의 내용처럼 뉴욕주가 전국을 선도하는 육아휴가 정책을 확대하여 주정부 공무원 80 퍼센트 이상에게 12주간의 완전 육아휴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의 노동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정부 공무원의 대부분이 주정부 역사 상 최초로 육아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월급과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시정연설에서 모든 뉴욕주 공무원에게 완전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는 선도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공약을 이행합니다. 뉴욕은 뉴욕주 직원 80 퍼센트 이상에게 완전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며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에게 중요한 지원 라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정부 공무원 노조 3개와 육아휴직 확대에 관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다양한 직무의 52,000명 이상을 대변하는 공무원 연합(Civil Service Employees Association, CSEA)과 육아휴직 확대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전문직, 과학 및 기술직을 대표하는 공무원 연맹(Public Employees Federation, PEF)을 비롯해 고등교육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대학 전문가 연합(United University Professions, UUP)와 유급 육아휴직 확대에 대한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준되면, 직원들은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신생아, 양육 또는 입양된 어린이와의 유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12주의 완전 유급 휴가를 받게 됩니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력 유지뿐만 아니라 산모와 유아의 건강에 대한 유급 육아휴직의 긍정적인 이점이 잘 문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유급 육아휴직 정책이 없는 선진국은 세계에서 미국뿐입니다. 새 부모와 간병인은 고용주가 후원하는 혜택 외에도 다양한 연방, 주 및 지방 휴가 정책의 패치워크에 의존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2023년 시정 연설의 일환으로 이 계획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노조 합의가 비준되면, 노조 근로자 140,000명은 10,000명의 무소속 뉴욕주 공무원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무소속 공무원들은 2월 Hochul 주지사의 결정으로 육아휴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청(Office of Employee Relations, OER)은 주정부 노조가 단체 협상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 혜택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노동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 DOL)가 [2023 젠더 임금 격차 보고서\(Gender Wage Gap Report\)](#)의 권고에 따라 주 전역의 육아휴직 공익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새롭게 아버지가 되었거나 될 예정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에 대해 알리고 육아휴직이 가족과 경력, 여성 근로자의 향후 임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여 더욱 많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DOL 육아휴직 공익 캠페인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2016년 주 전체의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PFL)법을 제정하면서 오랫동안 부모 및 가족 휴가 혜택을 주도해 왔습니다. 2021년 Hochul 주지사는 중병에 걸린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을 포함하도록 법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Mary E. Sullivan 공무원 연합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출산, 입양, 보호 등 부모가 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녀와 유대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뉴욕주 노조원들이 받을 수 있는 큰 혜택이며, 저는 이번 합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육아 및 가족 휴직 정책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는 가운데, 뉴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Wayne Spence 공무원 연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PEF는 열심히 일하는 뉴욕의 부모들에게 육아휴직을 확대하는데 합의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 뉴욕주는 전문 인력을 유치 및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자녀와 처음 몇 달 동안 가정과 일의 균형을 고민하지 않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전문가 연합 대표인 **Frederick E. Kowa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근로자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들은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운 자녀를 돌보고 유대를 쌓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을 통해 훌륭한 인재들을 뉴욕 주립 대학(SUNY)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교실과 캠퍼스, 병원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구성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지사는 유급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정부 노조와 협상을 통해 혜택을 확대해주신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Roberta Reardon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생아와 유대를 쌓는 시간을 확보하고 휴직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없애기 위한 뉴욕의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부모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놀라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근로자 부모를 지원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의 혜택 확대는 이러한 사명을 위한 한 걸음입니다."

뉴욕주 주지사 직속 직원 관계 사무국(Office of Employee Relations)의 **Michael Volforte**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은 부모들이 월급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직장 가정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이러한 유의미한 혜택을 주정부 직원들에게 확대할 수 있어 기쁘며, 우리 노조 파트너들과 함께 뉴욕주 노동자들에게 전액 유급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imothy R. Hogues 뉴욕주 행정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노동자들에게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부양하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키우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 인력 강화 및 지원에 대한 Hochul 주지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Neil Breslin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자 뉴욕 주민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을 때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급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매일 근무하는 주정부 공무원 150,000명 이상이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협상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성과를 내주신 Hochul 주지사와 CSEA, PEF, UUP 등 노조에 박수를 보냅니다."

A Better Balance의 공동 창립자 겸 공동 대표인 **Sherry Leiwan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 Better Balance는 전국 노동자의 유급 휴가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정부 공무원에게 유급휴가를 확대해주신 주지사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가 충분한 유급 휴가를 확보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뉴욕과 계속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